

언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통역사의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다

안소영

일어일문학과 3학년



해외 자매대학 제2외국어 장학유학파견 프로그램 후기

우리대학은 영어권을 제외한 제2외국어권 국가의 대학들과도
자매결연을 맺고, 유학생 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제2외국어 장학유학파견 프로그램은 일본의 키비국제대학,
아이치현립대학, 뜬토리환경대학, 도카이대학 등에서 수학하며
어학은 물론 정규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1학기부터 현재까지 아이치현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안소영 학생에게서 일본에서의 즐거운 유학생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 하나로 교환학생에 도전하다

어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전공하는 언어의 본토에 가서 생활해보고 싶은 로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 또한 그랬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중국과 선배가 교환학생으로 중국에 다녀온 걸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다짐 하나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생각보다 많은 지원자 수에 깜짝 놀랐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정신으로 면접을 봤는지도 모르겠지만 면접관의 질문에 누구보다 자신 있게 대답했던 것 같다. 드디어 결과가 발표되고 최종 합격자 자격으로 일본에 가게 되었을 때는 정말 꿈을 꾸는 것처럼 행복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한 달 늦게 학기가 시작된다. 출국날짜가 정해지고부터는 해외에서 생활한다는 생각에 마냥 두근거리기도 했고, 한편으론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앞섰다. 하지만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이니 공부도 여행도 모두 즐겁게 즐기고 오자는 마음을 가졌다. 중학교 때 좋아하게 된 일본 가수 때문에 일본어에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때부터 내 꿈은 줄곧 일본어 통역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 내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꿈에 한 발짝 다가선 듯한 기분이었다. 물론 당장 가서 만나게 될 현지 친구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할지 걱정도 됐지만 이미 비행기는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고, 그렇게 나의 유학생활도 시작되었다.

잊지 못할 추억과 친구를 선물한 나의 일본 유학생활

나는 현재 일본 아이치현에 위치한 아이치현립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레벨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시험을 통해 자신의 일본어 실력을 확인하고, 유학생 수업을 듣거나 일반학부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나는 주로 유학생 수업을 집중적으로 들었다. 유학생 수업이라고 해도 수업 별로 레벨이 나뉘어져 있어 초급, 중급, 상급반을 정할 수 있다. 수업을 들으며 기초를 더욱 탄탄히 다질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학부 수업 대신 유학생 수업을 들으면 일본인 친구를 만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다른 언어를 배워보기도 하면서 나의 세계관을 넓혀갈 수 있다는 점, 잘못된 일본어를 사용해도 바로 고쳐주시는 선생님이 있다는 점이 좋았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고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일본어로 발표를 한 일이었다. 유학생 수업 중에 <프로젝트 워크>라는 수업이 있는데, 수업을 듣는 사람들끼리 팀을 껴 특정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방식이었다. 우리 팀은 ‘모국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고, 직접 설문지를 만들어 발표를 하게 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돌리며 최종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완성했다. 드디어 담당 선생님과 유학생 친구들이 함께 고등학교를 찾아가 무사히 발표를 마쳤고, 끝난 후에는 학생들과 둘러앉아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우리가 가진 일본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일본의 고등학생들은 한국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좋아하고 있었다. 쉽게 하지 못할 경험을 했고, 한국에서 만 지냈더라면 몰랐을 것들을 알게 되어서 굉장히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한국을 좋아했던 기숙사 퓨터, 일본인 친구 ‘사에’는 내겐 정말 잊지 못할 친구로 남았다. 곤란한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들어주고, 항상 나를 반겨주었던 사에가 한국에 가서도 많이 그리울 것 같다.

해외 자매대학 제2외국어 장학유학파견 프로그램

지원자격 총 평균 평점 2.6 이상인 재학생

교육내용 한 학기 동안 일본 자매대학에 장학생으로 파견되어 어학과정
(혹은 정규과정) 수강

학점인정 현지 학교 성적표 및 수료증으로 본교 12학점 인정

장학지원 연수 수료 후 다음 학기 본교 등록 시 한 학기 수업료 100만 원 감면
(연수 학기가 출업 전 최종학기인 학생은 장학대상에서 제외)

* 단, 교환학생 신분으로 파견되는 학생은 본교등록으로 현지 수업료가 면제되는
대신 본교등록금 감면혜택은 없음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라 생각하며 보낸 빛나는 청춘의 시간

유학생활 내내 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행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이 아니면 일본의 많은 곳들을 가볼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다녔던 여행지 중에 가장 좋았던 곳은 교토였다. 한국에서 엄마와 할머니가 오셨을 때도, 친구가 놀러 왔을 때도 항상 교토에 갔다. 물론 교토가 아니더라도 일본의 정서는 어디서나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천 년의 수도라 불리는 교토는 정말 ‘아, 여기가 진짜 일본이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일본 특유의 정서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었다.

되돌아보면 지난 9개월이 참 짧은 것처럼 느껴진다. 처음 일본에 도착해 한국이 그리워질 때쯤엔 일년이 언제 다 지나갈까 싶었는데, 이제 내게 주어진 일본에서의 생활도 2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나는 일본어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과 대화하는 것이 무서웠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속담 하나가 내 마음에 와 닿았다. ‘いちごいちえ’. 해석하면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 또는 ‘인연’이라는 뜻이다. 올해 일본에 온 것이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기회라 생각하고 남은 2개월을 더욱 알차게 보내고 돌아갈 생각이다. 통역사라는 꿈에 한 발짝 다가선 것처럼, 스스로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일본에서 지난 빛나는 나의 청춘을 생각하면 닦고 일어날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❶

